



1.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3.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째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GTD 210기 (여자기, 11/30~12/3, 력터: 김은주 권사)
  - 가정교회 목자 분가(임명)식(11/30) - 그룹장 모임(12/9)
  - 새가족 환영의 밤(12/4, 대상: 2025년 오신 새가족) - 은혜 성가제(12/14)
  - 교육부 성탄 가족예배(12/19) - 성탄 주일 예배(12/21)
  - 성탄절 온가족 감사예배(12/25) - 목자 송년의 밤(12/30) - 송구영신예배(12/31)



그러나 읊은 슬픔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아갔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몸을 굽히는 자리로 나아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읊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진정한 감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의 예배를 드렸다. 모든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경배한 것은 매우 깊은 신앙이다. 감사는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 \* 감사의 세 가지 단계

- ① 조건부 감사 (If Thanksgiving)
- ② 때문에 감사 (Because Thanksgiving)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In spite of Thanksgiving) - 감사의 최고 단계

### ❁ 적용 질문 1

1) 올 한 해 내가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고난이 있었으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답 2.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라.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고 고백한다.

인생의 얻고 잃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욥은 재산과 자녀가 사라진 일을 주권적 역사로 이해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이다.

또한 다윗은 밋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기 전까지 일주일 금식하며 공혈을 구하지만, 아이가 죽자 목욕하고, 성전에서 예배한 후에 음식을 먹었다(사무엘하 12:20). (삼하 12: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그러한 행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는 주권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순복하였다. 이것이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 ❁ 적용 질문 2

1) 감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순간 시작된다.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 해답 3.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감사하라.

(욥 13: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but I will maintain mine own ways before him.**(킹 제임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극한적 신뢰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언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와 주님과 죽기까지 신뢰하는 관계이다. 주님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다. 그만큼 깊은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 ❁ 적용 질문 3

1)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라면 내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혹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내 방식, 내 의지, 내 경험”은 무엇인가?

### 해답 4. 감사함으로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라.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말한다. 들던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간 것이다.

감사는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꾼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 10~15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법 등을 배움으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고난 속에서 쓴 시편은 지금까지 수 많은 성도를 살리는 영적 유산이 되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다.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 ❁ 적용 질문 4

1)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2)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선하심, 신실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등)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가?